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아동문학학회 회원작품집

스트레스

세탁소



연변인민출판사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아동문학학회 회원작품집

스트레스세탁소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태학
책임교정: 김홍화

책임설계: 최 강
표지, 삽화: 최 강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아동문학학회

회 장: 김현순
부 회 장: 권중철, 림 철
감 사: 김철호

기획국장: 최동일
사무국장: 김미란, 박성훈
사무간사: 김 휘

《스트레스세탁소》편집위원회

주필: 전복록,

편집: 박성훈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烦恼洗涤部 / 全福录主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7

ISBN 7-80698-747-9

I. 烦... II. 全... III. 朝鲜族—儿童文学—作品综合集
—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 28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077565号

烦恼洗涤部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星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7 字数: 25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747-9 / I · 103 (民文)

版次: 2006年 7月 第 1 版 2006年 7月 第 1 次印刷

印数: 500 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 印刷厂联系调换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아동문학학회 회원작품집

스트레스세탁소

차
레

소 설

- 008 정든 백양나무/ 정문준
- 091 청소부이즘마/ 최길록
- 118 동화왕 그의 사촌녀동생/ 권중철
- 158 룡이의 산/ 최동일

동 화

- 001 특이한 사랑/ 김세형
- 065 옷을 선물하는 소녀/ 김을석
- 110 엄마말을 잘 들어야 해/ 리운학
- 169 풀꽃이 된 소녀/ 전복록
- 180 스트레스세탁소/ 김미란

산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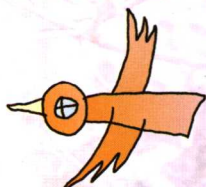
- 057 찬란한 무지개꿈을 위하여/ 최 용

력사극

- 057 소가족 한장/ 박영희

옛날옛적에

- 014 옥설봉과 내두산/ 정해철
- 075 시호/ 황상박



동심과 함께 · 사랑과 함께

동 시

- 034 노을(외 3수)/ 윤하섭
038 낙시질(외 4수)/ 리중복
042 금빛가을(외 4수)/ 황순자
046 친구와 다툼뒤(외 3수)/ 림금철
049 축구공(외 2수)/ 윤영민
052 디딤돌(외 1수)/ 허경순
054 정경남근작동시목록
135 김현순근작동시목록
139 김득만근작동시목록
142 소녀의 꿈(외 2수)/ 함박눈
145 봄비람이 되고파요(외 1수)/ 홍 원
147 봄은(외 3수)/ 윤실근
150 뽕 씹는 가족(외 3수)/ 현광호

우 화

- 073 오소리와 다람쥐/ 정당한
088 셋이 함께 올라/ 홍두깨

명작혼상

- 173 진주조개이야기/ (한국) 강준영





수 필

- 032 그림에 쓰인 동심/ 김계옥
- 059 짙푸른 숲빛에 휘감겨/ 정 토
- 062 끈기와 포기/ 박동하
- 104 유감을 안고 온 경주땅/ 김영금
- 153 김동진미니수필목록



작가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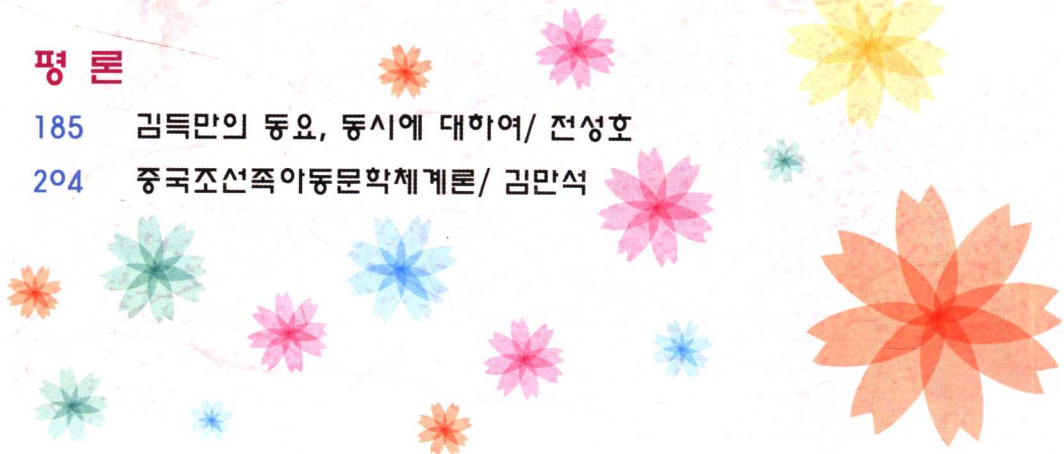
- 022 스윙프트와 《걸리버 여행기》에 대하여/ 김천사

기획조명

- 081 동시 . 오기울동시목록
- 086 평론 . 오기울의 동시목록을 읽고/ 전복록

평 론

- 185 김득만의 동요, 동시에 대하여/ 전성호
- 204 중국조선족아동문학체계론/ 김만석



* 동화 *

특이한 사랑

김세형

초원에 사는 송냥이엄마는 오늘 아들과 《딸》의 특이한 결혼 잔치를 벌이였습니다.

초청을 받고 온 래빈들속에는 범아저씨, 곰아저씨, 그리고 노루, 사슴, 여우, 토끼, 너구리 등 멧쟁이도 있고 총명한 원숭이도 있었습니다.

꽃피는 봄날 큰 느티나무그늘아래에 마련된 레식장에서 《신랑 줄배기와 신부 양양의 결혼축하연회》라고 쓴 프랑카드가 미풍에 살랑살랑 춤추고있었습니다.

토끼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여우에게 중요한 소식처럼 말합니다.

《저 양양이란 신부 말이야, 우리 초원에서는 일등미인이야!》

《너 벌써 신부를 봤니?》

여우가 호기심이 부쩍 동해 따지니 토끼는 그 무슨 비밀처럼 가만히 말합니다.

《본건 아니구 들었는데 활짝 핀 함박꽃 같대!》

《야, 그렇게 이쁘다니 막 보고싶은데 왜 아직도 레식을 시작하지 않을가?》

짜증스럽게 말하는 여우를 보고 원숭이는 달래듯이 말합니다.

《조급해말어. 곧 시작할거야.》

이때 코등에 안경을 건 당나귀주례가 마이크앞으로 나오더니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혼례식개막을 선포하고 신랑신부를 입장시킵니다.

《여러분, 신랑신부 입장입니다. 열렬한 박수!》

그러자 래빈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올립니다. 이렇게 들끓는 축복속에서 회색레복에 노란 넥타이를 맨 신랑 줄베기와 새하얗고 보드라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양양은 서로 팔짱을 꼭 끼고 레식장으로 나란히 걸어나오고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래빈들은 《이럴수가?》 하고 두눈이 휘둥그레졌고 그 열정적이던 박수소리와 환성도 딱 멎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것은 그 승냥이신랑결에 선 이쁜 신부가 다름아닌 면양이었기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초원의 역사를 보면 연약한 면양은 언제나 승냥이의 먹이가 되었기때문입니다. 이런 원쑤지간에 그 무슨 사랑이 있단 말인가? 면양은 결코 죽을 길을 선택한것이다. 이 건 결혼이 아니라 비극이다. 이런 분위기가 레식장을 무겁게 누르고있었습니다.

그렇긴말건 당나귀주례는 레식을 계속 집행하면서 성경을 손에 들고 신랑신부에게 엄숙하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라!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가?》

승냥이신랑은 공손하게

《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당나귀주례는 또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가?》

면양신부는 다소곳이 숙였던 머리를 들면서 대답합니다.

《예, 이 세상끝까지 사랑할것입니다!》

신부의 이 대답이 떨어지자 레식장은 더욱 소란해집니다.

《예쁜 신부야, 불쌍한 신부야! 그 선택은 틀렸어! 사랑은 아니야! 그만뒤, 그만뒤...》

여우는 풍풍 뛰면서 소리칩니다. 너구리도 소리칩니다.

《면양은 승냥이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 신부는 뭔가에 속히운 게 틀림없어. 우리가 깨우쳐줘야 해!》

《그 말이 맞아.》 하며 노루, 사슴, 토끼들도 이구동성으로 웨칩니다.

《면양신부야, 너도 우리처럼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인데 어찌 고기와 뼈다귀를 먹는 육식동물을 사랑할수 있단 말이나? 당장 그만두어라.》

분위기는 점점 팽팽해지는데 원숭이가 나서면서 제지시킵니다.

《여보게들, 나도 그런 생각이 없는건 아니지만 자꾸만 새롭게 변해가는 개방세월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고있지 않는가? 자, 그럼 면양신부가 승냥이신랑을 사랑하게 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라도 있을것이니 조급해말고 하회를 지켜보자구.》

원숭이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당나귀주례에게 청시합니다.

《주례선생님, 면양신부가 승냥이신랑을 사랑하게 된 그 래력을 알고싶은데 신부의 말을 들어봅시다.》

면양신부는 기다렸다는듯이 래빈들앞으로 나와서 공손하게 말을 올립니다.

《래빈 여러분, 이렇게까지 저를 관심해주시고 사랑해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승냥이신랑을 사랑할수 있는것은 한 특이한 사랑이 가르쳐준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제에게 젖꼭지를 물려 자기 새끼처럼 키워주신 승냥이어머님께서 배운 사랑입니다.»

래빈들은 웅성거립니다.

《승냥이엄마가 면앙을 젖을 먹여 키웠다?》

《이거 듣다 첫소리인데?》

《도무지 믿을수 없는 황당한 거짓말이야!》

당나귀주레는 소란스러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이크앞에 와 큰소리로 제지시킵니다.

《여러분, 조용합시다. 신부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면양신부에게 말을 계속 하라고 마이크를 밀어줍니다. 면양신부는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냥이어머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이 대체 어떤것인지 궁금하시겠지요? 그럼 친히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 보세요.》 하면서 면양신부는 승냥이엄마를 마이크앞으로 모십니다. 래빈들앞에 나선 승냥이엄마는 무거운 심정으로 말을 뱉니다.

《우리 승냥이족속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초원의 여러 족속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침통하게 사과하면서 꼭 말하고싶은것은 우리 승냥이에게도 사랑이 있다는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사랑의 본능앞에서는 약자와 강자도, 서로 다른 족속도 공존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때 반응이 굵든 굵아지미는 실박한 팔을 내저으며 소리칩니다.

《허, 이거 참. 내같은 둔재는 <본능>이요, <공존>이요 하는 소리는 듣고도 모르겠다. 그래 저 면앙을 친딸처럼 키웠다는게 사실인가?》

신랑 줄배기 신부 양 양 의 결혼 축하연회



《그럼 말하지요.》 하며 회억에 잠기는 승냥이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바로 3년전 오늘이었지요. 내가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큰 수리개가 젓먹이새끼를 채갔어요. 나는 너무도 원통해 미칠것만 같았어요. 나는 내 새끼를 구하겠다고 수리개가 날아간 방향을 따라 뛰어가고 쫓아가도 허탕만 쳤지요. 가슴에 젓이 통통 불어나 못견디게 굴었어요. 꼭 어디선가 내 새끼가 에미를 찾고있는것 같아 그만 초원을 가로세로 지르면서 허둥지둥 찾고있는데 어디에서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게 아니겠어요! 나는 그리로 막 달려갔어요. 가보니 거기엔 에미를 잃은 작은 새끼양이 입을 짹 벌리고 젖을 찾고있었어요.》

지금 레스토랑은 물을 끼얹은듯 조용합니다. 래빈들은 숨을 죽이고 듣고있습니다.

이때 어진 사슴이 가슴을 치며 한탄합니다.

《야, 불쌍하다. 새끼양은 승냥이의 먹이가 됐구나.》

이 말에 여우도 맛장구 칩니다.

《거야 볼보듯 뻔하지. 그 야들야들한 고기덩이를 가만둘수 있겠나?》

《좀 조용들 못하고?》

여태 말이 없던 범아저씨가 큰소리로 제지시키고 승냥이엄마에게 묻습니다.

《그때엔 부인의 배도 출출했겠는데 그래 그 면양새끼를 놔뒀단 말이요? 나같으면 한입에 삼킬수도 있었겠는데.》

그 말에 승냥이엄마는 멍멍이 맞서나섭니다.

《그 판단은 틀렸어요. 나는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때 나의 눈에는 그 면양이 틀림없는 내 새끼로 보이면서 <오, 너 여기 있었구나!> 하고 젖꼭지를 물렸지요. 어찌면 그렇게도 탐스럽게 팔각팔각 빨던지! 내 가슴에서는 형용할수 없는 사랑의 정이 북받치면서 그 애를 내 품안에 꼭 끌어안았지요. 그때로부터 나와 면양새끼는 특이한 사랑으로 모녀가 되었지요. 나는 누가 이 애를 다칠세라 곱게곱게 키웠어요. 시집갈 나이가 되자 나는 같은 면양총각에게 보내자 했는데 이 애가 견결히 거절하면서 나의 큰 아들을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말한 승냥이엄마는 행복한 미소를 띠우면서 한마디 더 보냅니다.

《〈수양딸 며느리삼기〉라고 인젠 이 애가 나의 며느리로 되었답니다. 호호호...》

승냥이엄마의 말에 크게 감동된 래빈들은 그 특이한 사랑을 찬양하면서 즐기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때 범아저씨는 낮에 부끄러운 빛을 띠우며 말합니다.

《이 초원에서는 내가 우두머리인데 이런 놀라운 기분이 있는 줄 미처 몰랐소.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승냥이엄마가 해냈으니 장

한 일일세!」 하며 꺾꺾 웃는데 여우도 한마디 껴칩니다.

《암, 장하구말구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더니 우리 초원에도 좋은 본보기가 생겼습니다!》

여우의 말을 듣고 원숭이는 놀려줍니다.

《허, 아가는 풍풍 뛰면서 그만뛰, 그만뛰 하더니...》

여우는 부끄러워 《헤헤...》 웃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여 뽕뽕하던 레스토랑은 리해와 화해로 금시 뜨거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승냥이엄마가 제자리로 돌아가자 면양신부는 래빈앞에 다시 나섭니다.

《그럼 어머님 말씀을 이어 저의 말을 계속 하겠어요. 보다싶이 철같은 사실은 승냥이에게도 사랑이 있다는것을 증명했어요. 참된 사랑앞에서는 야성도 머리를 숙였어요. 그렇다면 승냥이를 야수로만 보는 그런 관념은 이미 낡은 관념이 아닐가요? 승냥이의 그 루명도 벗겨줄 때가 왔다고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초원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서로 뜨거운 사랑을 주면서 삽시다.》

면양신부의 이 선언같은 연설을 듣고 래빈들은 심사숙고하면서 의론을 벌입니다. 결과 의론은 한뼘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초원의 모든 족속들은 승냥이엄마네 경험을 본받아 그 특이한 사랑을 살려간다면 새로운 초원은 한결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여 번영해질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단합되니 레스토랑은 환희에 차넘칩니다.

래빈들은 술잔을 높이 들고 《신랑신부의 행복을 위하여!》, 《초원의 행복을 위하여!》 하고 소리치면서 술잔을 마주칩니다.

《쟁그렁— 땡!》

* 소 설 *

정든 백양나무

정문준

한 사내애가 백양나무에 다가서고있었다. 그 애의 손에 흰 분필이 쥐여져있다. 장난꾸러기가 무슨 락서를 하려는것일까? 그 애는 푸른 초리가 하느적거리는 백양나무를 쳐다보기도 하고 귀를 솔깃하고 새들의 지저귐소리에 파묻히기도 한다. 갑자기 사내애는 사뭇 섭섭한 기분에 잠긴듯이 백양나무를 얼싸안으며 나무등결에 볼을 대는것이였다. 꼭마치 송아지친구와 갈라질 때의 쓸쓸하고 눈물겨운 그런 감동의 장면 같았다. 저 애가 웬 일일까. 호기심이 동한 계집애는 살금살금 다가서고있었다.

울먹거림에 가까운 사내애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계집애는 다가섰다.

《이제 우리는 너와 갈라진다. 백양나무야, 잘 있어. 응!》

그만 계집애는 쓴웃음을 쏘을뻔했다. 두손으로 입귀를 꼭 쥐고 꺾이찍은 사내애의 언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사내애는 분필 권 손으로 나무등걸에 <박호>라는 제 이름을 내리줄로 썼다. 멋들어진 글획이 연푸른 나무등걸에 흰서리가 금방 둔친듯이 선명했다. 한발 물러나 제 이름을 감상하던 사내애는 분필을 던지고 호주머니에서 손칼을 꺼내 쥐었다. 이어 예리한 칼날이 나무등걸에 쑥 찢러지는 서슬에 계집애는 제 가슴에 칼끝이 대인듯 몸을 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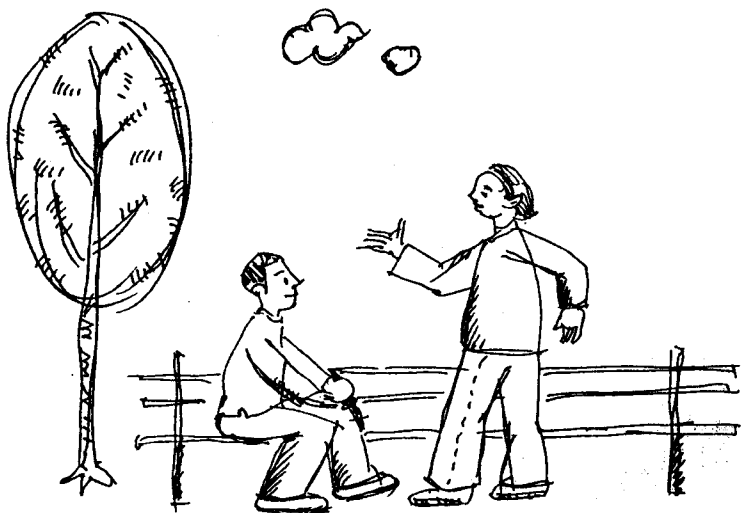
되알진 소릴 지르며 계집애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왜 숨쉬는 나무에 칼을 박는거니?》

손을 멈춘 사내애는 핵 머리를 돌렸다.

《숨쉬는 나무? 허야, 우습네. 나무도 숨을 쉬나 뭐?》

사내애의 얼굴이 우습강스럽게 일그러졌다. 거기엔 개의치 않고 계집애는 칼자욱에서 내배인 나무즙액을 손에 묻혀 사내애의 앞에 내밀었다.



《봐, 이건 나무의 상처에서 나온 피야!》

《뭐?! 넌 진짜색맹이구나. 그건 물이다. 세상에 어디 하얀 피가 있니?》

《나무의 피는 흰색이야. 넌 나무가 피를 흘리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뭐?! 뭐?! 나무가 운다구? 넌 점점 괴상한 말만 하는구나. 어째 머리가 잘못된게 아니야?》

그 말에 분함을 참는 계집애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있었다. 그런 계집애를 더 끌려줄양으로 다시 제 이름을 새기려 들던 사내애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계집애가 칼 권 그 애의 손을 때렸던 것이다. 얼른 칼을 주운 계집애는 내쳐 몸을 빼려 했다. 했지만 사내애의 빠른 달음박질을 당해낼수 없었다.

사내애가 앞을 막아섰다.

《그 칼 내놓지 못하겠니?》

《다시 나무에 칼을 대지 않고야...》

당돌하게 내뱉는 계집애의 고운 눈초리가 매섭게 치며졌다. 손칼은 계집애의 손아귀에서 꼬리를 감추고있었다.

《이 주먹맛 보고싶어 그래?》

제 힘을 톡대고 사내애는 주먹을 둘러메었다. 계집애는 뒤주춤했다. 겁질린 눈에서 이슬같은것이 구울다가 눈귀에 맺히고있었다.

울음을 참으며 계집애가 성을 냈다.

《넌 나와 함께 저 나무를 심었지 뭐야? 그런데 넌 으흑... 봐, 상처입은 백양나무가 몸부림치는걸...》

대들어 손칼을 앗으려던 사내애의 눈길이 백양나무쪽으로 날아갔다. 드세진듯한 바람속에 태질하는 백양나무가 사내애의 눈을 꼭 채워주고있었다. 저 백양나무는 그들이 이곳 가암소학교에 붙던 날 심은것이다. 달구지에 실어온 나무묘목가운데서 제일 키가 크고 굵직한 백양을 골라 계집애는 물초롱을 기울이고 사내애는 흙을 복돈

아주며 어서어서 자라기를 바라면서 두 애는 한마음이 되었다.

눈바람이 세차던 어느날 새벽 벼짚마대를 안고 계집애가 교정에 나타났다. 그 애가 한창 백양나무에 가마니를 둘러주고있는데 새끼줄통구리를 멘 사내애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왜 혼자 왔니?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사내애가 나무랐했다.

《간밤 꿈에 나무가 감기에 걸려 쿵쿵 기침을 짓는게 아니겠니. 꿈을 깨자마자 달려왔다.》

《나도 어제밤에 꿈을 꿔는데 우리가 심은 백양나무가 측한에 걸려 덜덜 떨고있지 뭐야. 난 병든 나무를 안고 온밤 울었잖아...》

스키모자를 올려붙이며 사내애는 이마의 땀을 땀 문질렀다. 빨갛게 상기된 얼굴에 웃음이 병글고있었다.

《왜 똑같은 꿈이 우릴 찾아왔을가? 응?...》

의문 실린 계집애의 눈에 정기가 반짝 빛났다.

《우리가 함께 심은 나무이니깐 나무도 우리에게 똑같은 꿈을 준게지 뭐...》

《호호호... 우리 심은 꿈나무!...》

《히히히... 우리 심은 꿈나무!...》

그들은 웃고 떠들며 가마니를 둘러준 백양나무에 새끼줄을 촘촘히 감아주었다. 금시 잠퐁해진듯한 눈바람을 자장가로 들으면서 애어린 백양나무는 꿈속에 잠들고있었다...

어느덧 6년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 한밤 지나면 이 가암소학교를 떠나 중학교로 가는 그들의 마음은 못내 섭섭하고 쓸쓸하고 함께 애수에 젖는 기분이었다.

사내애의 눈귀에는 물갈기가 일었다.

《애, 내가 금방 너한테 너무했어.》

《아니야. 넌 우리가 심은 백양나무에 무정했던거야!》

아직도 말에 날을 세우고있는 계집애의 얼굴빛은 도고했다.